

# '개교 60주년 기념' 조선이공대 OB산악회, 키르기스스탄 레닌 피크 등정

### 윤중현·김천 대원 정상 올라

조선이공대학교 OB산악회가 키르기스스탄 레닌 피크(Lenin Peak, 7134m) 등정에 성공했다. <사진> 조선이공대(총장 조순계)가 주관하고 조선이공대학교 OB산악회(단장 장미호)가 주최한 이번 원정에서 윤중현(53)·김천(47) 대원은 지난 10일 제3 캠프(6100m)를 출발, 흑한과 강풍을 뚫고 9시간 20분 만인 오후 12시 20분 정상에 올랐다.

원정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해외 미담봉 탐사 및 원정 등반을 통해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원정을 기획했다. 원정대는 장창수 대원이 원정대장을, 윤중현 대원이 등반대장을 맡아 모두 일급 명으로 구성됐다.

레닌 피크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 일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지난달 23일 출국한 원정대는 키르기스스탄 아식타쉬 베이스 캠프(3600m)에 도착, 해발 4400m 지점에 제1 캠프, 5300m에 제2 캠프를 구축한 뒤 정상 도전에 나섰다. 등정에 성공한 윤 대원은 지난 1998년 중국 공가산



(7556m) 북동릉을 세계 초등한 데 이어 2000년 K2(8611m), 2007년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 정상을 잇따라 오른 바 있다.

1976년 창립된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1990년과 1992년, 1997년 세 차례의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8125m)을 시작으로 K2(8611m), 로체 남벽(8516m), 시야광마(8046m), 트랑고타워(6239m) 원정 등반 등을 통해 알피니즘 실천과 산악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가수 선, 광복절 81.5km 마라톤 완주...15억 모금

가수 선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을 완주해 약 15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이 행사는 선과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주최한 기부 마라톤 '2023 815런'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8150명이 모였다.

선은 32도에 이르는 폭염에도 7시간 49분 47초 만에 81.5km를 완주했다. 16km를 남겨두고 다리 경련이 심해졌지만 고통을 참아가며 완주에 성공했다.

이 행사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조원희, 배우 임시완·윤세아·임세미·박재민 등이 참여했다.

노스페이스·카카오같이가치 등 54개 후원 기업의 기부금과 개인 참가자 참가비를 더해 15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이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선은 "지난 2020년부터 광복절마다 81.5km를 완주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대 '동심 인형극회', 춘천 인형극 경연대회 무대미술상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유아교육과 소모임 '동심 인형극회' (오나연·박세영·한윤아·정선우·정예은·조운신·김은서·강수자·신유정·전서빈·문미현)가 제35회 춘천 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8월 4-6일)에서 '무대미술상'을 받았다. <사진> 광주대 동심 인형극회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은별이가 상상 속 세상에서 여러 친구들을 도와주고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대원 광양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사진)이 16일 전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의 모금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나눔리더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원 의원의 기부금은 전남지역 사회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남지역 곳곳 수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다"며 "나눔문화 확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운동주 묘비 발견 日 오무라 교수 소장자료 기증

## 한국문학관에 2만여 점

국립한국문학관은 일본의 한국 근현대문학 전문가인 고(故)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사진)와 아내대 명예교수의 유족이 소장 자료 2만여 점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문학관에 기증될 자료에는 오무라 교수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연구한 자료, 한국·일본 연구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관련 자료, 연변 등 중국에서 수집한 한국문학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오무라 마스오는 시인 운동주의 묘비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중국 연변대학 체류 중 유족의 부탁을 받고 중국 룡징(龍井)에 있는 운동주의 묘소를 찾아냈



다. 이어 광명중학 학적부, 리코대학교 동 시사대학의 학적부 등 운동주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근현대 문학 전문가인 그는 운동주 관련 논문과 책을 10편 넘게 냈다. 2018년 한국문학번역상을, 지난해엔 연세대 용재학술상을 받았으며, 지난 1월 89세로 별세했다.

오무라 교수의 자료는 올해 안에 일본 치바의 자택 서고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제작한 뒤 국내로 이관될 예정이다. 한국문학관은 향후 기증자료 전시, 학술대회, 목록집과 현판 제작 등 기증의 뜻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71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야아 육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로컬 콘텐츠 페스타 토크콘서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우아한 제국 스페셜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다이노맨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연인 파트1(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재)
1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5 배틀트립 2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20 스튜디오 K 스페셜		
3	00 상상푸르기 푸다 2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불편해도 괜찮아 4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KBS 뉴스타임 10 주디세이(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슈퍼트론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힐링 여수야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야아 육아	30 홍길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세컨 하우스 2	00 다큐 M	00 국민사형투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영상앨범 산재	50 아이 러브 스포츠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로컬 콘텐츠 페스타 릴레이 토크쇼(재)
12	00 KBS 중계식	1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25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시공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곡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사교육 현안 특집 교육의 재발견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25일간의 로드 투 브라질 -내가 사랑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1:30 한국기행 <두근두근, 로망대로 4부 숨은 정원 찾기>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55 다큐멘터리K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2:50 귀하신 몸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로로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7일(음 7월 2일 丁未)

<p>36년생 가버이 여긴다면 그 속에 숨은 진가를 쉽게 놓칠 수도 있음을 알라. 48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60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72년생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성향이다. 84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96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89</p>	<p>42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54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66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78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90년생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 02년생 자음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37, 88</p>
<p>37년생 당면한 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49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겠다. 61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73년생 부수적인 일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85년생 관점의 차원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97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3</p>	<p>43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55년생 궁극적으로는 해결점이 이르게 될 것이다. 67년생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형세이다. 79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91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다. 0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1, 71</p>
<p>38년생 작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50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2년생 취할 수 없다 면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생 조정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라. 86년생 막대한 추정은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98년생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2, 73</p>	<p>44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56년생 조심으로써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눈감으로 판단하다가는 실수하리라. 80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바람직하다. 92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04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14, 93</p>
<p>39년생 평소대로 마음먹었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51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75년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운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87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99년생 편차가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5, 56</p>	<p>45년생 강하고 갖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57년생 번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69년생 함께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81년생 일상 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93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05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52</p>
<p>40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52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64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76년생 협력하여 조처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88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느니라. 00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행운의 숫자 : 26, 50</p>	<p>34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46년생 손재수가 비치니 제반사에 조심해야겠다. 58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70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82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대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94년생 전환점을 맞이 할 길잡이에서이다. 행운의 숫자 : 32, 79</p>
<p>41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53년생 썩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65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77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89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01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3, 74</p>	<p>35년생 기회를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위상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하다. 47년생 밤심하는 순간에 현상이 일어난다. 59년생 타산지식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71년생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해롭다. 83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95년생 입장의 차이를 기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80</p>